

# 보험과 구호



전국재해대책협의회



## 머 리 말

우리는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수해 및 한해등 천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거액을 투입하여 재해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한된 재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동족들이 겪는 불의의 재난을 정부의 힘에만 의존해서 구호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서로 돕는 동포애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이재민 구호와 재해 복구의 발판이 되고자 힘써 왔습니다.

창립 26개 성상에 걸쳐서 우리 협의회에서 모금한 성금은 5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많은 돈은 주택복구비를 비롯하여 구호 양곡대 및 긴급 구호비 등으로 신속 정확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계 각층으로부터 기탁되어 온 8 백여만점의 각종 구호품이 현지 이재민에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불의의 천재를 당하여 이재민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재해구호를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정성을 모아 평소에 대책을 세워두어야 하겠으며 불의의 큰 재해를 만났을 때에는 재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민 동포를 내자녀 내친지를 도와주듯이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해 동안 재해모금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기관과 정성 어린 성금품을 모아 보내주신 국내동포 및 해외동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동안 우리 협의회업적을 대강 간추려 알려 드립니다.

1987년 2월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유건호